

임박한 위기의 라틴아메리카 신흥국들 #1 베네수엘라

작성자 : 최명호(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

작성일 : 2015년 6월 24일

2012년 파라과이 대통령 페르난도 루고는 의회에 의해 탄핵되었다. 이를 계기로 반미 혹은 좌파 성향의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가입국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은 파라과이의 메르코수르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켰고¹⁾, 대신 당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이끌던 베네수엘라가 파라과이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물론 정식으로 가입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베네수엘라의 메르코수르 가입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모든 이들에게 메르코수르는 반미연합 혹은 남아메리카 좌파연합으로 보였고, 친미 혹은 보수적 성향으로는 파라과이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2015년 6월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정치권에서 베네수엘라의 메르코수르 회원국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²⁾ 물론 브라질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문제의 본질은 사실 베네수엘라 내부와 라틴아메리카 정치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라틴아메리카에는 전통적으로 군부독재, 친미, 보수적 세력이 오랜 기간 정권을 잡아왔고 현재 권력을 유지하는가에 상관없이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파라과이 또한 콜로라도라는 정당이 61년 동안이나 통치했었으며 멕시코의 경우도 제도혁명당이 65년 동안 통치했었고 현재도 정권을 잡고 있다. 물론 좌파적/반미적 성향의 정치세력도 존재하는데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이 두 세력은 경쟁 관계에 있다. 브라질의 야권 정치인들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내부적 상황 때문이다. 2014년 2월부터 베네수엘라에선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벌어졌다. 이 반정부시위를 자본가들의 사보타지(sabotage)로 보는 경향도 있고, 친미적 보수성향의 정치세력을 사주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만, 정치적 관점과 해석을 배제하면 2014년 베네수엘라 반정부시위는 생존권 투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시위의 중심도시였던 산크리스토팔의 시장 다니엘 세바요스와 레오폴도 로페스 등이 수감되었고, 이중 야당 지도자인 레오폴도 로페스

1) 2013년 파라과이가 베네수엘라의 메르코수르 가입을 인정하면서 파라과이 또한 가입국 자격을 회복하였다.

2) Cf.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620020106695>

는 2015년 6월 18일 기준 4주째 단식하고 있다.³⁾ 현재 소셜 미디어에서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200만 명 정도이고 그 수는 단식이 지속되는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⁴⁾ 이것은 그저 반정부 성향의 야당인사의 단식과 그 반향으로만 보긴 힘든 상황이다.

차베스 정부와 이를 계승한 마두로 정부 또한 쿠바와 함께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좌파/반미 정권이다. 차베스-마두로 정권에 독재적 성격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논쟁적이지만 차베스-마두로 정권이 독재정권이라 낙인찍히게 되면 차베스주의를 '21세기형 사회주의'라고 칭송하던 흐름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2014년 시위를 진압하면서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며 현재 마두로 정부는 라틴아메리카의 우파적 성향의 어떤 정치인과도 레오폴도 로페스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실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베네수엘라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정권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며 더 나아가 스스로 민주정부가 아님을 입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다. 베네수엘라와 마두로 정권은 정파적 관점에서 차베스주의를 사장시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석유라는 단일자원 의존적 경제구조는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표 1>처럼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마두로 정권 탄생 이후로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한 2015년 성장률도 -4.5%, 2016년 성장률은 -6.5%이다. 여러 변수들로 인해 이 수치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두로 정권 마지막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각 경제기구들의 공통점이다. <표 3>에 표시된 중앙정부의 이자율은 18.5-19.5% 사이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것은 현재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문제이며 2014년 베네수엘라 소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물가상승률과 생필품 부족을 단적으로 표현한 <표 4, 5, 6>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높은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현재 국제 정세와는 다르게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1월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은 68.5%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5% 미만, OECD 평균 1.5%임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국가부도 위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인상지수는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826.4 포인트를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구소련 붕괴 이후 쿠바국민들이 겪었던 고난의 시기(Periodo

3) Cf.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8/0200000000AKR20150618005200087.H TML?input=1179r>

4) 현재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약 120만 명의 팔로워가 있고 정당 및 개별 지지자들의 페이지와 트위터를 합치면 200만 명 정도이다. 그가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투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네수엘라 국기를 들고 돌격을 외치는 사진과 표 등일 것이다.

Especial)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네수엘라의 일반 국민들, 차베스주의자들이 아닌 혹은 덜 열성적인 사람들에게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차베스주의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식료품 가격 상승률이 2015년 1월 현재 102.23%이므로 사회 최하층부터 식비로 2배 혹은 그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 다시 말하면 사회 최하층의 생존이 문제가 되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늘어가는 실업률<표 8>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도 2015년을 중심으로 오히려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유출될 것으로 보이나 베네수엘라는 일정량의 원유를 계속 수출하고 있고 다른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계 자본이 유입되고 있으므로 베네수엘라 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 FRB의 이자율 상승 등의 요인이 없다면 전체적으로는 어렵다고 해도 큰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계속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긍정적인 요인을 언급한다면 꾸준한 인구증가를 들 수 있다. 안정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십여 년 이상 꾸준한 구매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상황임을 고려하면 베네수엘라의 안정적인 인구증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제상황이 점점 악화된다면 쿠바에서 있었던 대규모 이주가 베네수엘라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선부른 결론일 수도 있지만, 차베스주의적 개혁 혹은 혁명을 통해 자립적/자주적 경제구조를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석유라는 단일자원 의존적 경제구조가 안정적인 국가경제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제 원유가격은 급락 이후 약 60% 정도의 수준이나 <표 10>과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꾸준히 회복하고 있다. 2014년 7월에는 배럴당 106달러 수준이었으나 8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하여 2015년 1월에는 45.8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6월 현재 64달러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단일 자원에 의존적인 성격이 강한 베네수엘라의 경우 이것은 앞으로 국제수지 또한 점점 좋아질 것이며 외환 또한 비례하여 더 유입될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이들은 현재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칠레의 아옌데 대통령이 정권을 잃어버린 시기와 비슷하다고 한다. 외부의 요인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베네수엘라의 문제는 1차적으로 내재적이며 그 중심에 환율에 있다. 정확히는 미 달러와 볼리바르화의 환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크게 두

개의 환율이 존재한다.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이다. 이 둘의 차이는 크기는 30배, 보통 20배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달러당 볼리바르화는 공식적으로 6.28BsF이며 비공식 환율로는 122.7BsF이라고 한다. 하지만 암시장의 환율은 300BsF이상이라고 한다.⁵⁾ 사실 베네수엘라의 환율은 이중이 아니라 다중으로 상당히 복잡하다. 우선 수입을 위한 환율로 의료 및 식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또한 식품과 의료품 등 생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저 환율, 2015년 5월 현재기준으로는 6.28BsF를 적용받는다. 여행을 위해 환전하는 경우는 달러당 12BsF인데 여행하려는 국가에 따라 환전할 수 있는 총량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 쿠바를 여행하는 경우 3,000달러이고 미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700달러 정도이다. 할당량보다 더 환전하려면 자유환전 시스템을 통해 현재기준으로 122.7BsF로 환전할 수 있다.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 굉장히 복잡한 이 시스템은 수많은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결론적으로 이 시스템은 베네수엘라 안에서 달러 환치기만으로 작게는 20배에서 3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발달한 달러 암시장이 베네수엘라 안에서 달러 환치기가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임을 반증하고 있다.

여행에서 절약한 달러를 암시장에 파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며, 해외에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후 카드로 결제하고 상당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달러로 받는 경우 등을 비롯하여 시스템을 허점을 이용하려는 수법은 아주 다양하다. 하지만 이런 개개인들의 불법거래 혹은 꼼수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유령회사를 이용한 대규모의 환치기이다. 유령회사가 수입을 한다고 당국에 신고한 후, 달러를 최저 환율로 환전한 후 서류상으로 수입된 것으로 꾸민 후 그 달러를 암시장에 파는 방법으로 20-3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금액의 20-3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상품은 2015년 현재 베네수엘라 그리고 베네수엘라보다는 단순한 이중환율을 사용하는 아르헨티나 정도일 것이다. 공식집계에 따르면 매년 베네수엘라 외환통제위원회(Cadivi)를 통해 환전된 금액 중 1/3이 유령회사로 유입되었으며 그 금액이 연간 약 200억 달러로 베네수엘라 GDP의 4%에 달한다고 한다.⁶⁾ 베네수엘라가 외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원유가격이 급락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가 저성장의 시대에 68.5%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실패해서만은 아닌 것이다. 이것은 모두 공적 이익을 외면하고 사적 이익만을 추구한 매국노 세력 때문이다. 이들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생필품 부족과 차등적 환율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5) Cf. <http://www.focus-economics.com/news/venezuela/exchange-rate/parallel-dollar-continues-plummet-value-may>

6) Andrew Cawthorne, Patricia Velez, 'Venezuela says 40percent of dollar buyers are shell companies', 『Reuters』, 12-12-2013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달러 환전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고 유령회사를 만들고 정부기관을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적어도 현 정권의 실세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들, 권력의 중심과 연결된 이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베네수엘라 공직자와 상위계층의 도덕성과 청렴도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부패한 이들은 현재 필요에 의해 차베스주의자의 가면을 쓰고 있고 마두로 정권을 지지한다고 한다. 과연 마두로는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신을 이용하는 이들을 정리하고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부정적이다.⁷⁾

현재 베네수엘라는 원유수출을 대체할 산업구조도 없으며 차베스를 대신할 정치적 지도자도 없는 것 같다. 불행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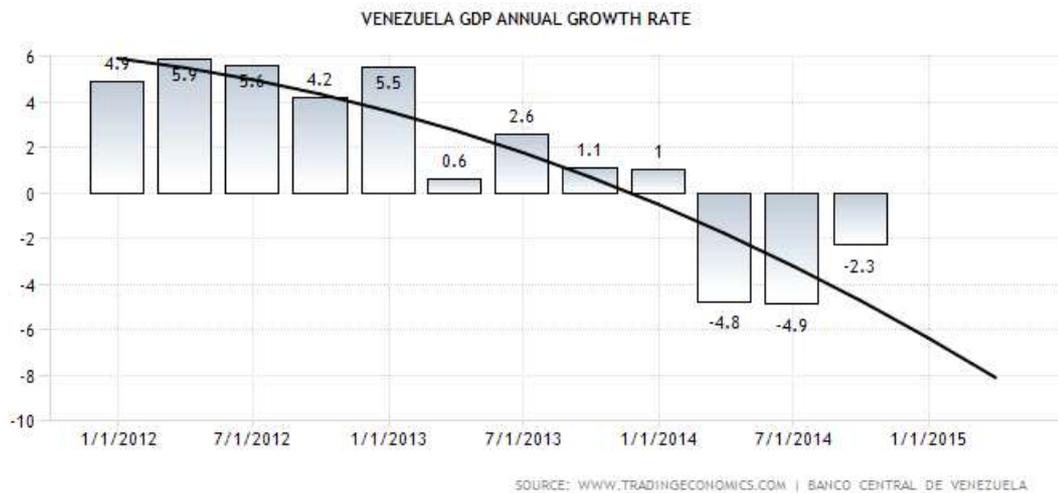


표 1. 베네수엘라 경제 성장률 출처 : <http://www.tradingeconomics.com/venezuela>

7) 대다수의 차베스주의자들은 차베스 사후부터 베네수엘라가 부패에 빠졌다고 하지만 권력형 정경유착은 베네수엘라에서 상당히 긴 역사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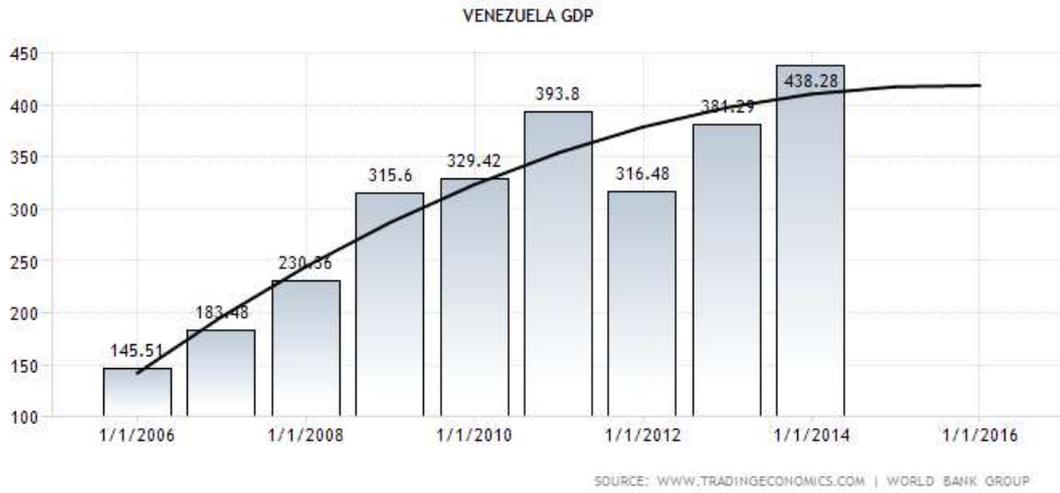


표 2. 베네수엘라 GDP 기준 USD Billion, 출처 : <http://www.tradingeconomics.com/venezue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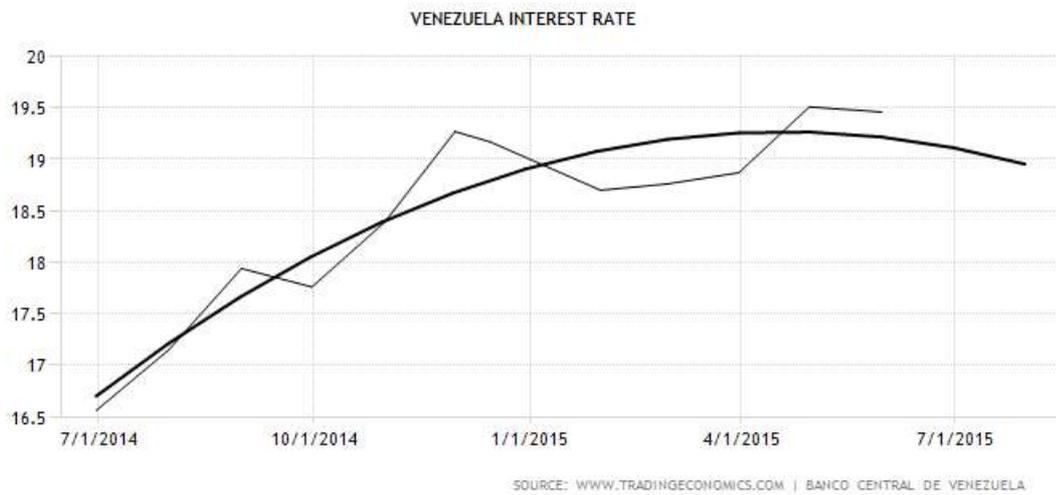


표 3. 베네수엘라 이자율, 출처 : <http://www.tradingeconomics.com/venezuela>



표 4. 베네수엘라 물가상승률, 출처 : <http://www.tradingeconomics.com/venezuela>



표 5. 베네수엘라 소비자물가지수, 출처 : <http://www.tradingeconomics.com/venezue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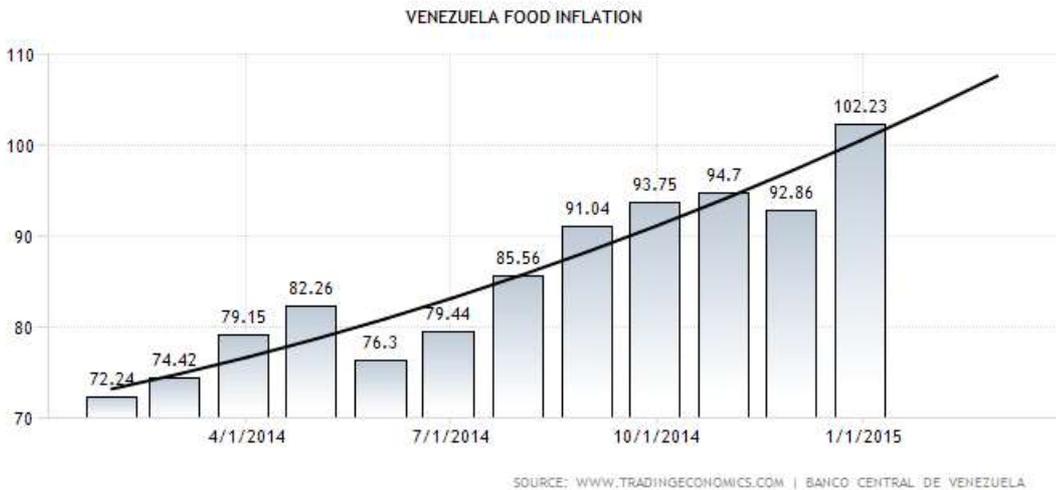


표 6. 베네수엘라 식료품 가격 상승률, 출처 : <http://www.tradingeconomics.com/venezue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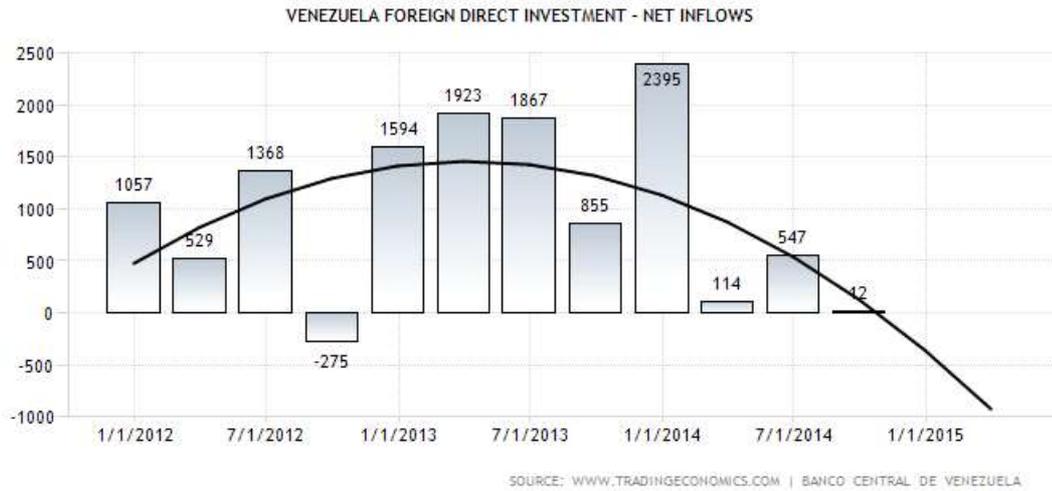


표 7. 베네수엘라 외국인직접투자, 기준 USD Billion, 출처 : <http://www.tradingeconomics.com/venezue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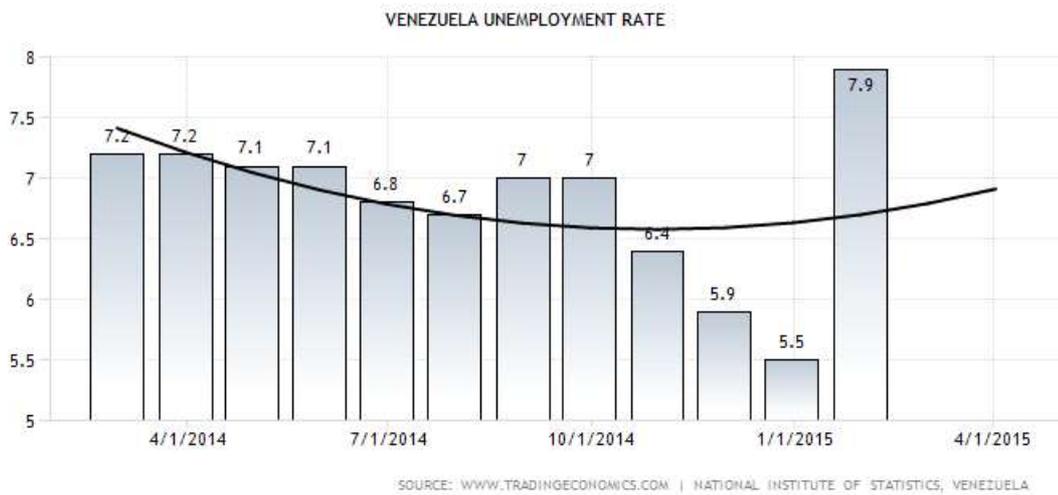


표 8. 베네수엘라 실업률, 출처 : <http://www.tradingeconomics.com/venezue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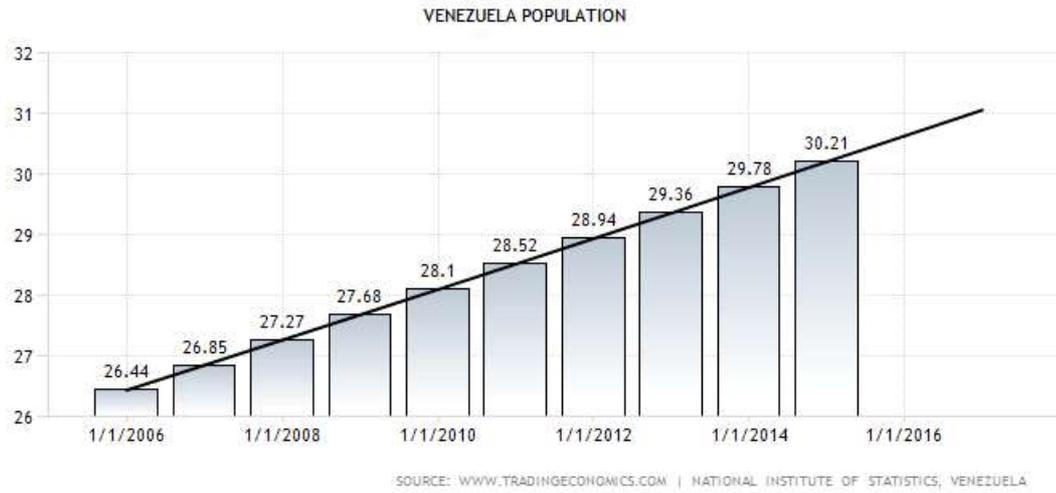


표 9. 베네수엘라 총인구, 단위 백만, 출처 : <http://www.tradingeconomics.com/venezue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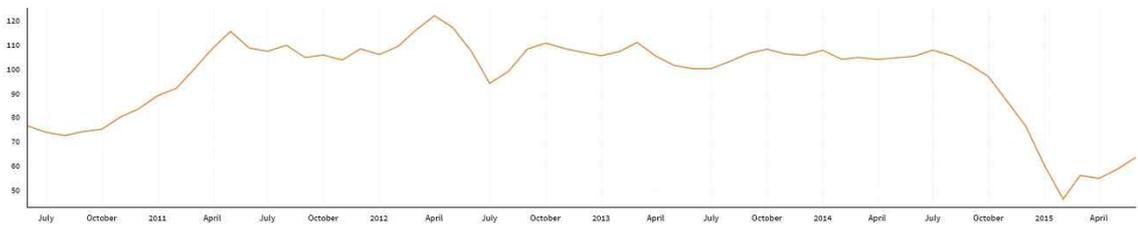


표 10. 지난 5년간 두바이 원유 가격 변화(단위달러/배럴), 출처 https://www.quandl.com/data/ODA/OILDUB_USD-Dubai-Crude-Oil-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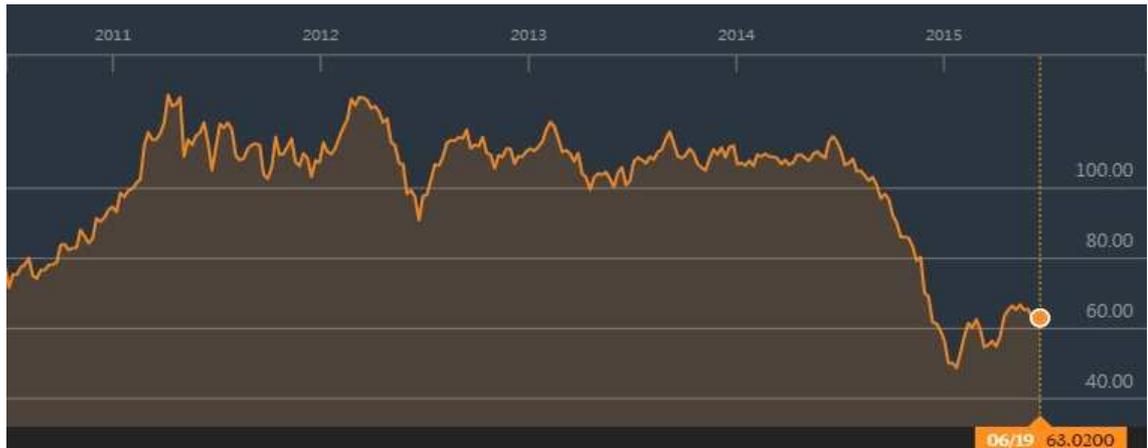


표 11. 지난 5년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가격 변화(단위달러/배럴), 출처: <http://www.bloomberg.com/energy>